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계열]

수험번호		성명	
------	--	----	--

[문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예술은 어떤 것일까? 예술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 중 하나에서는 예술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적어도 아름답지 않으면 예술 작품일 수 없다는 생각인데,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 오래되어 정확하게 언제부터 성립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18세기 독일의 사상가 바움가르텐은 미(美)를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미를 예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인간 소외와 세기말에 대한 불안과 권태가 유럽을 휩쓸면서 전통적인 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술이 예술 세계를 지배한다. 미적 체험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사람에게 따라 다르므로 미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전 시대의 눈으로 보면 미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예술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추하거나 평범해 보이는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개인에게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처럼 예술이 가진 아름다움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이는 비단 예술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대상이든 그 가치는 절대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나>

유세차(維歲次) 모년 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씨는 두어 자 글로써 침자(針子)께 고하노니,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되,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A)나의 정회(情懷)와 남과 다름이라. 오호통재(嗚呼痛哉)라, 아깝고 불쌍하다. (B)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于今) 이십칠 년이라.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오.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行狀)과 나의 회포를 충충히 적어 영결하노라.

연전에 우리 시삼촌께옵서 동지사사(冬至上使) 낙점(落點)을 무르와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쌍을 주시거늘, 친정과 원근 일가에게 보내고, 비복들도 씹씹이 날날이 나눠 주고, 그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고 익히어 지금까지 해포되었더니, 슬프다. 연분이 비상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영구히 보존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지 아니하리오.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다.

나의 신세 박명하여 슬하에 한 자녀 없고, 인명이 흉완(凶頑)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이 빈궁하여 침선(針線)에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시름을 잊고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 오늘날 너를 영결하니, 오호통재라,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다.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너는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치를 가졌으니, 물중(物中)의 명물(名物)이요, 철중(鐵中)의 쟁쟁(錚錚)이라.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의 협객이요, 굳세고 끈기는 만고의 충절을 듣는 듯한지라. 능라(綾羅)와 비단에 난봉(鸞鳳)과 공작을 수놓을 제, 그 민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듣는 듯하니, 어찌 인력이 미칠 바리오.

- 유씨 부인, <조침문(弔針文)> 부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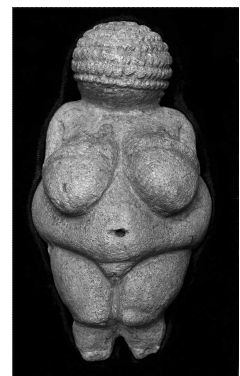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C)성애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반짝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B)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애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달경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엔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애꽃>

<라>



[그림 1]



[그림 2]

비너스는 그리스 신화 속 아프로디테를 지칭하는 로마식 명칭이다. 미의 여신인 비너스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전형으로 여겨진다.

[그림 1]은 <밀로의 비너스>라는 이름의 조각상이다. 1820년 한 농부에 의해 에게 해의 밀로 섬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프랑스의 한 외교관이 이것을 루이 18세에게 바쳤으며, 1821년부터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었다. 이 작품은 미의 여신인 비너스를 표현한 것으로 완벽한 비율을 가진 여성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현재의 조각상은 비록 두 팔이 잘려나간 상태로 발굴되어 작가가 표현한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헬레니즘 시대의 이상적인 신체 비율과 생동감 넘치는 묘사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빈 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 2] 역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1908년 오스트리아 니더외스터라이히주 빌렌도르프 근교의 구석기 시대 지층에서 발견되었다. 조각상은 12cm 남짓 크기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풍만한 가슴은 허리까지 늘어져 있고, 두툼한 배와 엉덩이는 두드러지게 크게 표현되어 있다. 반면, 작은 팔은 가슴 위에 올려져 있다. 얼굴의 이목구비는 아예 표현되지 않았다. 이는 (C)구석기인들이 생식과 출산, 다산의 상징으로서 주술적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 1] 제시문 <가>의 논지를 토대로 (A)의 ㉠에 대한, (B)의 ㉡에 대한, (C)의 ㉢에 대한 가치 판단을 논하시오. (500±25자) [100점]

[문2]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갈통(Galtung, J.)은 폭력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면서 물리적·직접적 폭력 외에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한다. 소극적 평화란 전쟁, 테러, 범죄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빈곤이나 인권 침해 같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갈통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인 적극적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가난, 차별, 억압, 환경 파괴 등이 제거되어 사람들 간의 협력과 조화, 그리고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적극적 평화는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한다.

<나>

무릇 토지는 세상의 커다란 근본이다. 『춘추』의 의리(義理)에 따르면, 제후는 임금에 내린 토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대부(大夫)라 할지라도 토지를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다. 이제 힘센 백성들이 논밭을 점유한 것이 혹은 수백 수천 경(頃)에 이르러, 그 부유함이 임금과 제후를 넘어섰으며, 이는 스스로 토지를 제멋대로 소유하는 것이다. …(중략)… 정전법을 완벽하게 시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마땅히 식구 수에 비례하여 토지를 소유하게 하고, 토지 소유의 한계를 정하여 함부로 토지를 매매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토지의 독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니, 이처럼 토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 주희, 『주자대전』

<다>

핵 확산 금지 조약(NPT)은 5개의 핵보유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외의 국가로 핵무기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1960년대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간의 협상에 따라 1970년에 발효되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핵보유국이 선의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모든 회원국이 국제 원자력 기구(IAEA)와 안전 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연구·생산 및 이용 개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 『한겨레』, 2013. 12. 9.

<라>

선별적 복지는 행복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시장 경제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부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붕괴되었을 때 제한적으로 사회 복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재산,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일정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한정하여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선별적 복지의 사례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들 수 있다.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층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므로, 보편적 복지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하지만 복지 대상을 게으르거나 무능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부정적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기능이므로 사회 복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로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보편적 복지의 사례로는 국

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국민 건강 보험 등을 들 수 있다. 소득 수준이나 조건을 따로 두지 않고 시행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누리는 연령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든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와는 다르게 부정적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복지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복지 비용이 많이 들며, 선별적 복지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마>

의심할 여지없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돕는다. 물에 빠진 어린아이 바로 곁에 서서 바라보기만 할 사람은 거의 없지만, 아프리카의 기근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이다.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와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이냐가 우리의 의무에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 낸다는 견해를 정당화해 줄 타당한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인종적 친화성을 고려해 보자. 유럽계의 사람들은 가난한 아프리카인들을 돕기 전에 가난한 유럽인들을 도와야 하는가? 우리들 대부분은 그러한 제안을 즉석에서 거부할 것이며, 우리가 이를 거부해야 할 이유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논의에서 제시되었다. 즉,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만약 아프리카인들이 유럽인들보다 음식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유럽인들을 우선한다면, 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싱어, 『실천 윤리학』

<바>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종교, 사회적 질서와 가치, 언어 등을 받아들일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존 사회의 문화와 가치 속에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이민자들을 융화하거나 흡수해야 한다고 보는 동화주의 관점이다. 동화주의 관점은 이민자가 자신의 언어와 문화, 사회적 특성을 포기하고, 기존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단일하고 분리될 수 없는 공화주의적 전통에 입각한 동화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주의는 무분별한 사적 이익의 추구보다 공적 이익을 중시하는 이념이다. 프랑스의 동화주의는 다른 문화에서 프랑스로 온 사람이 문화적 적응 과정을 거쳐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어 기존 프랑스 사회에 융화되는 것을 뜻한다. 물론, 개별 가족 내에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보존은 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인정될 뿐 사회적으로는 용납되지 않는다. 프랑스 동화주의는 누구나 어떤 문화적 배경을 지녔든 상관 없이 프랑스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제 2] 제시문 <가>는 평화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나>, <다>, <라>, <마>, <바>에 나타난 평화 달성에 대한 노력을 <가>에서 제시한 두 가지 개념에 따라 구분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500±25자) [100점]